

‘연타석 3루타’ 변우혁 “재밋고 마음 편하게 한다”



KIA타이거즈 변우혁이 지난 26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9차전에서 3루타를 때린 후 달리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지난 25일 1군 전격 콜업 직후 5경기서 4할 맹활약 KIA 34년만 연타석 3루타 이범호 “좌투수 상대 중용”



KIA타이거즈 변우혁(24)이 타선의 새로운 옵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퓨처스리그에서 홈런과 장타율, 출루율 등 공격 지표가 모두 상위권에 오르며 지난 25일 1군 콜업 후 5경기에서 4할 타율을 기록, 팀 타선에 새 활력소가 되고 있다.

변우혁은 지난 28일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다이노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7차전 1-0으로 앞선 2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3루타를 때리며 KIA의 11-8 승리에 힘을 보탰다.

특히 변우혁은 이날 3루타로 KIA에서는 34년 만의 연타석 3루타(중전 1990년 이호성)를 터트렸다. KBO 리그에서도 지난 2022년 김혜성(키움히어로즈) 이후 2년 만이다. 변우혁은 앞서 지난 26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 시즌 9차전 5-1로 앞선 8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3루타를 때린 바 있다.

변우혁은 최근 자신의 타격감에 대해 “작년 마무리 훈련에서부터 스윙에 조금 손을 댔는데 점점 몸에 익으면서 좋아진 것 같다”며 “2군에서 마음 편하게 시즌을 시작한 게 타닝 포인트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변우혁은 올해 퓨처스리그 30경기에서

타율 0.333(90타수 30안타)으로 26타점 15득점을 생산했다.

특히 콜업 후인 지난 28일까지도 타점(2위)을 비롯해 홈런(6개·공동 3위)과 장타율(0.567·3위), 출루율(0.470·1위) 등 타격 지표가 대부분 상위권에 올랐다.

그는 “2군에서는 손석락 감독님과 코치님들 모두 마음을 편하게 해주신다”며 “초반에 좋은 감각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유지해야겠다 마음먹은 것이 어느 정도 요령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퓨처스리그에서 뛰면서 가장 집중한 부분이 마인드 컨트롤과 스윙이다. 타격감을 유지하기 위해 마음을 편하게 먹고, 기술적으로는 가볍고 간결한 스윙을 만들었다.

변우혁은 “1군에 올라가도 더 잘하려고 욕심부리지 말자고 생각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던 대로만 하자고 했다”며 “스윙은 공이 배트 중심에 맞으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결한 스윙을 계속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SG랜더스와 더블헤더에서는 특별 엔트리로 잠시 1군에 콜업되기도 했다. 더블헤더 1차전에서는 2타수 무안타로 물러나며 아쉬움을 삼켰으나 2차전에 대타로 나서 안타를 때리며 첫 안타를 신고했다.

변우혁은 “(김)현수랑 같이 광주로 오면서 어차피 하루 있다 오는 거 재밋게 하고 오자고 얘기했다”며 “결과는 아쉬웠지만 과정이 좋았다. 똑같이 하던 대로 하자고 생각했던 게 2차전 안타로 나온 것 같다”고 회상했다.

변우혁은 더블헤더 특별 엔트리로 잠시

1군에 다녀온 뒤에도 타격감을 꾸준히 유지했고 결국 이범호 감독의 선택을 받았다.

이 감독은 좌완 선발이 나오는 경기에 우타자들의 필요성을 감안해 변우혁을 중용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더블헤더 때는 조금 긴장했는데 이번에는 급하게 광주로 오면서 생각할 겨를 없이 정신없었다”며 “타이밍을 맞추는데 주력하고 있다. 너무 늦거나 빠르지 않게, 배트가 나갔을 때 제 포인트에 공이 와있도록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신경 쓰는 부분이 바뀌면서 타구 질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올 시즌 안타 6개가 문승원(SSG랜더스)과 브랜든, 김호준, 이영하, 이병헌(이상 두산베어스), 신민혁(NC다이노스) 등 쟁쟁한 투수들을 상대로 나왔다.

변우혁은 “타이밍이 좋아지니까 좋은 타구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며 “수싸움한다고 변화구를 노리면 직구를 손낼 수 없을 정도로 타이밍이 늦는다. 직구 타이밍에 나가면 맞출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빠른 타이밍에 준비했다”고 복기했다.

그의 올 시즌 목표는 확실하지 않다. 구체적인 목표를 잡고 이에 임매이기보다는 마음 편하고 여유 있는 상태에서 주어진 기회에 충실하며 팀에 보탬이 되겠다는 각오다.

변우혁은 “마음 편하게 여유 있게 생각하려고 하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하던 대로 재밋게 하고 마음 편하고 여유 있게 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팀에 힘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KIA, ‘월 크로우 대체’ 캠 알드레드 영입

총액 32만5000달러 계약 체결 내일 입국... 다양한 구종 장점

KIA타이거즈가 팔꿈치 부상으로 이탈한 월 크로우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피츠버그 파이리츠 산하 트리플A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언스 소속으로 활약하던 캠 알드레드를 영입했다.

KIA는 좌완 투수 캠 알드레드와 계약금 2만5000달러, 연봉 30만달러 등 총액 32만5000달러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1996년생인 캠 알드레드는 미국 오하이오주 바타비아 출신으로 신장 191cm, 체중 93kg의 체격이다.

캠 알드레드는 메이저리그(MLB)에서 1시즌, 마이너리그에서 6시즌을 활동했다.

캠 알드레드는 2022년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으로 1경기에 등판해 1이닝을 소화한 것이 유일한 MLB 경력이다.

MLB 경력은 많지 않지만 마이너리그에서는 선발로 풍부한 경험을 지녔다. 마이너리그 통산 174경기(선발 28경기)에서 20승 17패 28홀드 7세이브로 평균자책점은 4.15를 기록했다.

트리플A에서는 87경기(선발 28경기)에 나서 12승 14패 9홀드 2세이브로 평균자책점 4.86이었다.

캠 알드레드는 평균 140km 중반의 직구와 더불어 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종을 장착했다.



KIA타이거즈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낙점된 캠 알드레드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특히 타자가 타이밍을 잡기 어렵게 만드는 테크닉이 뛰어나 탈삼진을 많이 유도하는 유형이다.

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인 캠 알드레드는 구단을 통해 “명문 구단 KIA타이거즈에서 뛰게 돼 영광이다”며 “KIA타이거즈 팬들의 응원이 열정적이라고 들었다. 하루빨리 팬들을 만나고 싶고 내 기량을 최대한으로 펼쳐 우승에 일조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규빈 기자

양오열 광산구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파리 패럴림픽 지원단장 임명

선수단 경기력 향상 중책

양오열 광산구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겸 ㈜동진기업 대표이사가 오는 8-9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패럴림픽에서 코리아하우스 운영과 한식 도시락 제작 지원, 응원단 구성 등 선수 지원단 총괄 중책을 맡는다.

광주시 광산구장애인체육회는 29일 오전 서울올림픽파크텔 서울홀에서 열린 대한장애인체육회 제12차 이사회에서 양 수석부회장이 2024 파리 패럴림픽 지원단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오는 8월28일부터 9월8일까지 프랑스 파리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패럴림픽에는 182개국 44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한국은 17개 종목에 150여명이 파견될 예정이다.

지원단장은 이 선수단의 현지 적응과



양오열 광산구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오른쪽)과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한식 도시락을 제작해 지원하며 한국 장애인 체육과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홍보하는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하고 경기 참관 응원단을 구성해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

양 수석부회장은 광산구 소재 원통형 2차 전지 강소기업인 ㈜동진기업을 이끌고

있으며 빛그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초대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번 패럴림픽 참가 선수단을 위해 후원금 1억원을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기탁했으며 다음 달 후원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양오열 수석부회장은 “오랜 기간 광산구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항상 기업인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고심이 많았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또 “광산구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후원하는 것이 시작이었고 올해 패럴림픽이 개최됨에 따라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하고 싶었다”며 “영광스러운 기회를 맡겨주심에 감사드리며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우리 선수단을 응원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규빈 기자

동강대 야구부, U리그 왕중왕전·전국체전 출전

동강대학교야구부가올해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U리그’ 왕중왕전 진출과 함께 전국체전 광주시 대표를 확정했다.

홍현우 감독이 이끄는 동강대 야구부는 최근 끝난 ‘2024 대학야구 U리그’ 조별예선에서 E조 4위를 차지하며 왕중왕전 티

켓을 따냈다.

동강대는 지난달 4일 개막한 U리그에서 송원대, 세한대, 목포과학대, 원광대, 조선이공대, 청운대, 한일장신대, 호원대, 흥익대 등 9개 팀과 조별예선을 치렀다.

개막전 이후 3연승을 달리는 등 투타 조

화를 앞세워 왕중왕전 진출에 성공했다.

또 동강대는 광주지역 팀 가운데 조별리그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둬 송원대와 조선이공대를 제치고 오는 10월 경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광주시 대표로 나선다.

지난 2004년 창단한 동강대 야구부는 전국대학야구대회 2014~2016년 하계리그 3연패 위업을 달성하며 우승기를 영구 보관 중이다.

최동환 기자